



남아프리카공화국

풍부한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유망 투자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어

최근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2005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전체 GDP의 27%, 전체 수출입의 25%, 공업생산의 40%, 전력 생산의 50%를 차지할 만큼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이다. 지난 9월 13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1회 인도, 브라질, 남아공 정상회담 및 경제협력포럼은 미래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3국을 단일경제 시장으로 묶는 FTA 체결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선언하였다. 또, 동 회의는 몇 년 전 선봉을 불러일으켰던 'BRICs'에 이어 'IBSA'라는 신조어를 세계에 각인시킴과 동시에 남아공을 아프리카 경제성장 주도국에서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국가로 주목받게 하였다.

〈표 1〉 남아공 주요광물 현황

광 물	매장량 ¹⁾	비중(%)	순위 ²⁾	생산량 ¹⁾	순위 ²⁾
알 루 미 노 규 산 염	51Mt	37.4	1	165Kt	2
크	5,500Mt	72.4	1	7,405Kt	1
금	36,000t	40.7	1	340t	1
망 간	4,400Mt	80.0	1	3,501Kt	1
바 나 뚝	12,000Kt	44.0	1	27Kt	1
백 금	70,000t	87.8	1	266t	1
철 광 석	1,500Mt	0.9	11	38Mt	7

주: 1. Mt: 백만 톤, Kt: 천 톤, t: 톤,

2. 세계전체.

자료: South African Yearbook 2004~05, KOTRA

남아공 경제성장의 배경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다양한 광물자원이다. 남아공은 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자원을 비롯하여, 망간, 크롬, 바나듐, 알루미늄, 주석, 우라늄 등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전략적 광물 자원의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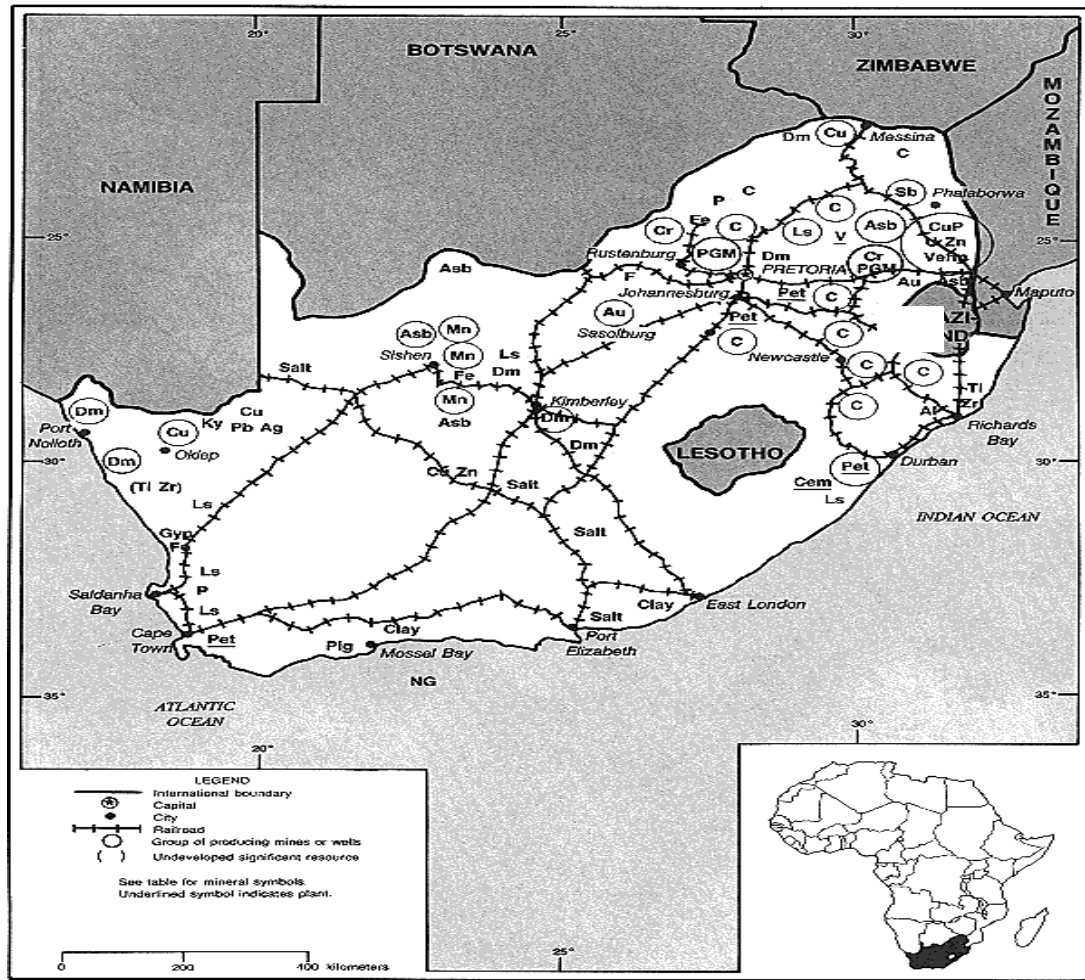
풍부한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일찍부터 광업 발전

남아공은 금, 백금, 망간, 크롬, 바나듐,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매장량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이아몬드, 납, 석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와 연관된 산업도 발달되었다. 풍부한 철광석(매장량 15억 톤, 세계 11위)을 바탕으로 한 철강산업은 남아공 제조업의 21%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광업 및 연관 분야는 남아공 전체 수출액의 32.9%와 고용 6%를 차지하는 등 동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광물

〈그림 1〉 남아공 주요 광물자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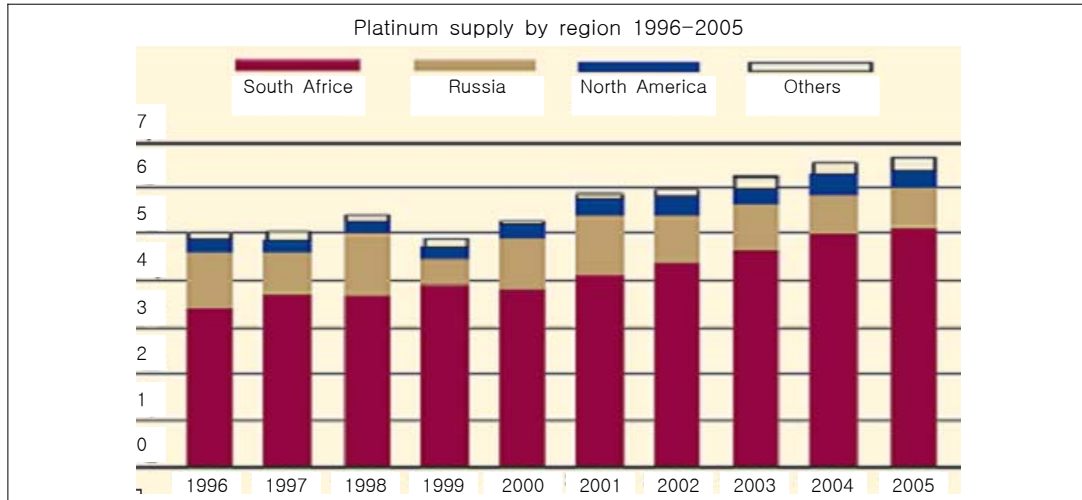


자료: U.S Geological Survey(USGS).

〈그림 2〉

주요국별 백금 생산 현황

단위: 천 온스



자료: Creamer Media's Research Channel 'Platinum-mining in South Africa'.

기업으로는 Anglo Platinum, Implats, Lonmin, Northam 등이 있으며, 주요 광산으로는 Kroondal, Marikana, Modikwa 등이 있다.

(1) 백금

남아공은 전 세계의 백금 매장량의 88.7%에 달하는 약 70,000톤의 백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Bushveld Complex (BIC)는 3개 지층광맥을 중심으로 경제성 있는 백금이 생산되고 있는 세계최대의 백

금 매장지역이다. 최근 백금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이곳에서도 탐사 열풍이 불고 있으며, 세계최대 백금생산회사인 Anglo Platinum은 현재 BIC에서 6개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2) 금

남아공의 금 매장량은 약 36,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평균 340톤을 생산하는 세계최대 금 광물보유국이다. 특히 금은 남아공 수출의 37%, 광물 수입(收入)의 27.4%를 차지하는 최대수입원으로 남아공의 연간

〈표 2〉

주요국별 금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단위: 톤

국명	매장량(톤)	순위	생산량	순위
남아공	36,000	1	340.0	1
미국	3,700	5	261.8	2
호주	6,000	2	258.4	3
중국	4,100	3	217.3	4
페루	4,100	3	173.2	7
캐나다	3,500	6	128.5	7

자료: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USGS

금 판매액은 약 4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남아공의 금 생산은 Witwatersrand 분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100년 이상에 걸쳐 41,000톤의 금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최대의 미개발 광산지로 남아있는 곳이다. 또, 금 생산에는 AngloGold¹⁾, Gold Fields, Harmony, Durban Roodepoort Deep(DRD) 외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3) 망간

남아공은 또한 세계최대 망간 보유국이다. 망간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80%인 약 44억 톤이며, 가채매장량의 80%가 Northern Cape 지역의 Hotazel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망간 생산업체로는 Samancor, Assmang, Highveld Steel and Vanadium 등이 있다.

(4) 다이아몬드

남아공은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국으로 연간 1,400만 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남아공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은 킴벌라이트 광산(11.4백만 캐럿)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남아공 킴벌라이트 광산 대부분을 세계적인 다이몬드 가공업체인 De Beers가 운영하고 있다.

(5) 티타늄

남아공은 호주 다음으로 풍부한 티타늄 부존량을 가진 국가로 남부 East London 으로부터 북부의 모잠비크 국경지대에 이르

는 965km에 걸친 동부 해안지대에 광상이 분포하고 있다.

(6) 석탄

남아공 석탄 매장량은 약 285.9억 톤으로 세계 6위 매장량을 자랑하며, 아프리카 석탄생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대서양 시장을 비롯하여 세계 석탄시장의 중요한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의 탄층은 심도가 낮고 층이 두꺼워 저비용으로 석탄 생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7) 안티몬(antimony)

남아공은 25만 톤의 안티몬 매장량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광산으로는 Mpumalanga 소재 Consolidated Murchison 광산이 있다.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광물 수익의 극대화 및 광물자원 이용확대라는 목표 아래 남아공 정부는 광물자원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자의 광물개발 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100% 자기자본 참여가 가능하고 광업권 소유에 대한 제한도 없다. 남아공 정부는 광업정보의 접근 시스템 구축, 국제경쟁력 있는 광업세율 보장, 광산업 국제동향과 국제관례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광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1) AngloGold는 Anglo American 산하의 회사로 남아공 최대의 금생산회사임.

〈표 3〉

주요 메이저들의 남아공 자원개발 현황

회 사	프로젝트	광 종	연간생산규모
Anglo American	Goedehoop 등 5개	유연탄	26.1백만 톤
Anglo Gold A,	Great Noligwa 등 8개	금	18.7백만 톤
BHP Billiton	Middelburg 등 6개	유연탄	56.8백만 톤
Glencore	Nkana	동.코발트	648만 톤
Goldfields	Kloofgold 등 7개	금	3.8백만 oz
Harmony Gold	Randfontain 등 7개	금	3.9백만 oz
	Nkomati	니켈 등	4,500톤
	Beeshoek	철	5.5백만톤
	Black Rock	망간	1.8백만톤
Kumba Resources	Sishen	철	27.1백만 톤
Placer Dome	South Deep	금	35.0만 oz
Rio Tinto	Polabola	동	28.8백만 톤
Xtrata	Boschmans 등 2개	유연탄	4.7백만 톤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26.7%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광업뿐만 아니라 최근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하여 남아공 정부는 은행 및 방송을 제외한 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인정,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Coega, East London, Richard's Bay,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지역에 산업개발지역(Industrial Development Zone: IDZ)을 조성하였으며, IDZ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기계설비류의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생산과정에서 남아공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을

을 사용할 경우 부가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광업부문의 흑인경제 활성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남아공 정부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에 의해 흑인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백인들의 경제적 부를 창출해온 왜곡된 경제제도를 수정하고 그간 역사적 불이익을 받아온 흑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광업부문 흑인²⁾경제 활성화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광업법(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Act of 2002)³⁾의 포괄적 사회경제활성화현장(South

2) Historically Disadvantaged South Africans(HDSA).

3) 남아공 정부는 1957년부터 시행해온 광업법(Mining Act)을 폐지하고 2002년 10월 의회에서 신광업법(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Act of 2002)을 통과시켜 2004년 5월 발효시킴. 신광업법은 국가가 남아공 내 모든 광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며, 남아공 국민들에 대해 적절한 방식을 통한 국

African Charter)에 따라 본 법령이 발효된 2004년 이후 5년까지 광업회사는 기존 광업권 소유지분의 최소 15%를 역사적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에게 이전하고, 10년까지는 소유지분의 26%를 이전해야 한다. 또한, 광업회사는 2010년까지 중·상급 관리자의 흑인비율을 40%이상으로 늘리고, 여성인력 고용도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신광업법은 흑인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 BEE)에 따라, 광업현장성과표(BEE Score board)⁴⁾을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업에게 정부입찰 및 금융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흑인들의 광업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 광물자원 확보의 교두보

남아공은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국가들간 광업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각료급 회의(African Mining Partnership: AMP) 창설을 주도하는 등 아프리카의 광업·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잘 발달된 광물 가공업을 바탕으로 철, 합금, 바나듐, 오산화물, 망간광 분야에서 세계최대 가공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은

발달된 인프라 및 제조업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아프리카 국가 중 투자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재의 경제력과 함께 흑인계층의 가치분소득 증대, 2010년 월드컵 개최 등을 바탕으로 향후 아프리카 경제를 주도할 국가로 주목받으며,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 조정국면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광물자원 가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수입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주요 광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광물조달을 위해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프리카는 과거 지속된 내전과 정치 불안, 자본과 기술부족 등으로 미탐사 및 미개발 광상이 많아 향후 광물자원개발 투자진출의 신천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 풍부하게 부존된 광물자원의 개발 투자와 더불어 낙후된 국가기반시설 건설, 빈약한 광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에도 참여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차 경 진】

가 광물자원으로의 접근 장려,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흑인에게 광물자원으로 접근할 기회 확대, 남아공 경제성장 촉진, 공용 증진 및 이를 통한 남아공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탐사 및 채광 활동과 관련된 소유권 확보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별 흑인 지분비율 및 종업원 비율을 명시한 점수제임. 동 제도로 인하여, 외국기업 단독으로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외국기업의 경우 대부분 남아공 흑인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입찰 참여가 가능함.